

희망 강국

당신의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들이 모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WIN CLASS

2016 WINTER vol.4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6 WINTER
vol.4



SPECIAL THEME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Finance Class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Valuable Class

VIP 성공스토리



오직 당신을 위해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과감하게-
위기에선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WIN CLASS의
승리투자공식이다.

승리를 향한
자산관리 어프로치

WIN CLASS



IBK 기업은행 WIN CLASS의 자산관리 승리공식

- | | | |
|---------------------------|--|--|
| Consulting Service |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자산관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
| Portfolio Service | 고객님의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용상품, 리포팅 서비스 |
| Premium Service |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경조사 지원 |

WIN CLASS

2016 Winter vol.4



IBK기업은행의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Tel. 02-729-6423, 6419
디자인·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INANCE CLASS

- 6 금융시장 전망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10 ISSUE ❶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Tip은 있다!
- 14 ISSUE ❷
경상수지 흑자국, 한국 바로보기
- 16 금융포커스
신혼부부 재테크 Q&A

SPECIAL THEME

- 18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 23 펀드상품(2016 vol.4)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 24 메가트렌드
미래의 먹거리 '다세대 리사이클링'

VALUABLE CLASS

- 30 VIP 성공스토리
엘림아트센터 이현건 회장의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
- 36 힐링 인문학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 38 리더 멘토링
현혹될 것인가, 통찰할 것인가?
- 42 STAR PB를 만나다
신뢰의 이름, IBK기업은행 스타PB
- 48 휴식을 위한 취미
혼자 놀 줄 알아야 인생이 즐겁다
- 50 문화 트렌드
제주로 남해로 동해로, 문화 귀촌의 바람이 분다
- 52 Healthy life
장내 미생물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
- 54 문화예술여행
우리가 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 62 골프가이드
겨울바람을 가르는 펀치샷 & 넉다운샷
- 66 책 읽는 즐거움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Financ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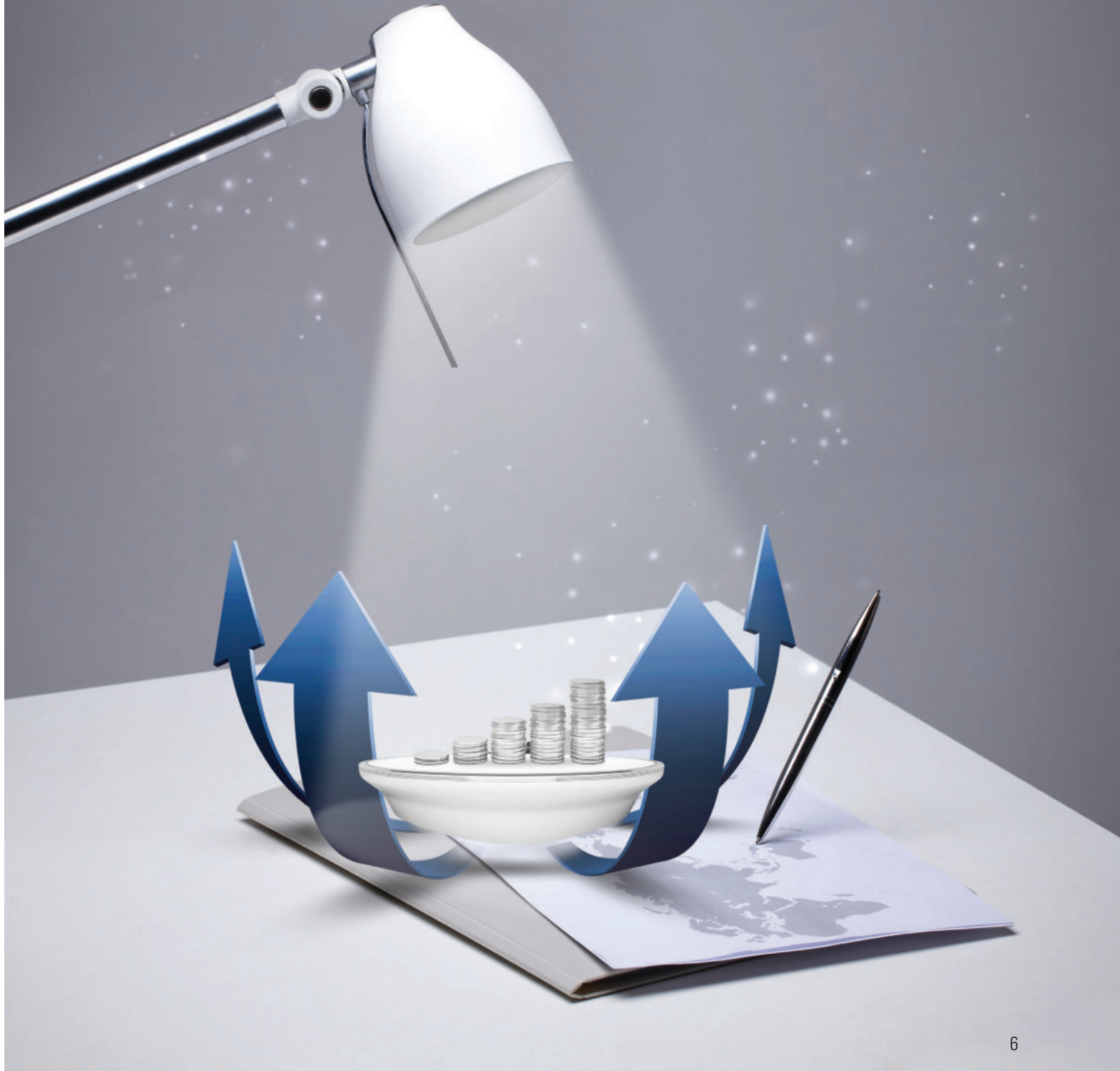
재테크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최신 분석 자료와 금융·시장·경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금융시장 전망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0	ISSUE ①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Tip은 있다!
14	ISSUE ②	경상수지 흑자국, 한국 바로보기
16	금융포커스	신혼부부 재테크 Q&A
18	SPECIAL THEME	트럼프 시대 : 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23	펀드상품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24	메가트렌드	미래의 먹거리 '다세대 리사이클링'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글.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2017년 유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7년에도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경제 여건이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같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도 지속될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년 특히 유럽이 주목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유럽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유럽이 주목 받을 첫 번째 이유는 주요국의 선거 때문이다. 먼저 4~5월에는 프랑스 대선이 있다. 현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반기에는 독일 대선도 예정돼 있다. 독일 총선에서 주요 이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선에 성공할 것인가 여부이다. 난민 반대로 급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처음으로 독일 하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석을 확보할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내년 EU 주요국들의 선거로 리더십이 약화되는 가운데 유럽 내 여러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유럽 내 은행 문제이다. 유럽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와 부실대출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주택모기지담보증권 부실 판매 관련 벌금 부과와 코코본드 이자 지급 관련 우려 등은 내년에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것이다. 다만 유럽 내에서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방어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유럽 은행의 리스크가 대형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

은 낮다는 판단이다.

세 번째로 브렉시트 협상의 진행도 유럽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년 3월말 전에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리스본협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브렉시트 협상 진행 자체가 영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은 여타 EU 국가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브렉시트 투표 직후처럼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응에 나설 것으로 판단돼 대형 위기로의 발전은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유럽 주요 일정

날짜	일정
2016년 12월 4일	이탈리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시 2017년 상반기 조기 총선 가능)
2017년 2월 12일	독일 대선
2017년 3월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예정 BREXIT 협상 시작 가능
2017년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
2017년 4월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2017년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 독일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지방선거
2017년 5월 14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선거 (독일 최대 선거구)
2017년 7월	그리스 65억 유로 규모 국채 만기
2017년 9~10월 중 (미정)	독일 총선

2017년 채권시장, 정책 기대의 빈자리

2017년 국내 채권시장은 연초 강세로 출발해 하반기 소폭 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 경제는 2016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진하겠으나 수년간 금리 하락을 이끌어왔던 통화정책 기대 감소로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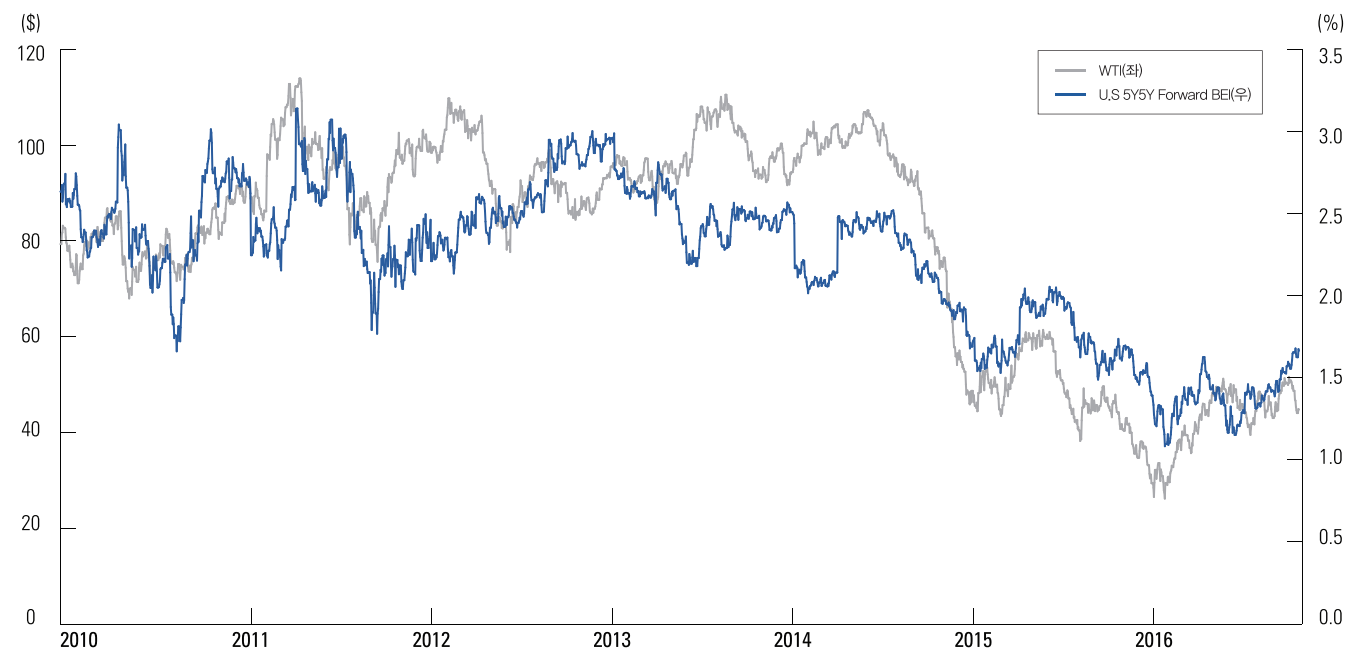
그간 금리 하락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요인은 1)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2) 디플레이션 우려이다. 2017년은 기존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유로존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매입 정책의 한계가 부각되는 것도 통화정책 기대 축소로 이어져 금리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유가 하락이 일단락되고, 관련 제품의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지효과가 점차 소멸될 전망이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유로존과 미국 등 주요국 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금리 상승폭과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저성장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상이 예정되어 있긴 하나, 미국 자국 내 민간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옐런 의장의 고압경제 용인 발언 등을 감안해 보면,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연내 1~2차례에 그칠 것이다. 중국 역시 공급과잉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다.

자연스레 글로벌 교역에 노출도가 높은 국내 경기는 내년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7년 국내 성장률을 2.4%(Y)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성장이 통화정책과 추경, 건설투자가 견인했지만, 2017년 같은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강한 정책 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구조적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과도기가 찾아올 것이다.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요인도 적지만, 수년 간 지속됐던 금리 하락에 대한 내성이 점차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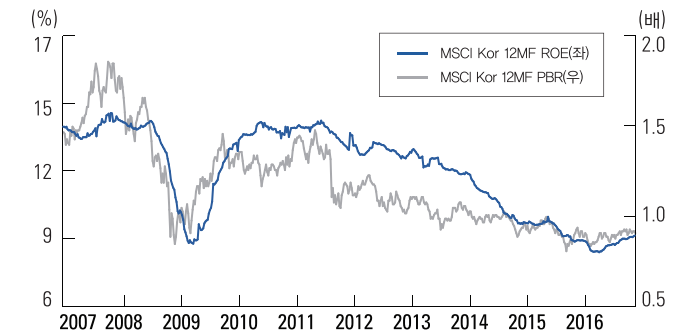
유가 반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감 상승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요인도 긍정적이다. 2016년 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연초 대비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역시 이익 전망치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의 ROE 추세 전환



자료 : Datastream, IBK투자증권

2017년, New Normal이 상승을 만든다

2017년 국내증시는 2011년 이후 이어져온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뉴노멀이라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글로벌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의 최대 약재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에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달러 강세는 제한되고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매크로 환경은 국내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증시에 지난 2016년 2월 이후와 같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지속시킬 것이며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유효한 국내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가운데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계절성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율의 계절성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추세 전환 신호가 되며 국내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요인도 긍정적이다. 2016년 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연초 대비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역시 이익 전망치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익지표의 개선은 지난 5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국내증시의 ROE 반등을 이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업종별 전략도 이런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ROE 대비 PBR 저평가 업종인 자동차와 은행, 철강 등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업종은 2017년 배당 수익률 역시 양호한 업종으로 저금리 시대의 배당주 관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WIN CLASS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Tip은 있다!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남은 기간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글: 김구열(대기업은행 VM사업부 차장)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첫째, 챙겨야 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고 둘째, 세법 개정내용을 포함한 자신에게 적합한 절세 Tip을 챙겨 보다 효과적으로 환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제부터 준비사항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준비 사항

우선 소득수준별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소득수준이 낮아도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이면 신용카드 뿐 아니라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는 사업연도 중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놓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연봉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증빙을 모을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또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일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

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으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절세 Tip 소개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즉, 소득을 줄이느냐 세금을 줄이느냐의 차이이다.

소득공제로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경우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가능

하다. 추가로 70세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 부모는 100만 원 공제한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공제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공제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은 예전에 비해 공제액이 줄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를 넘기면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할인이거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고, 그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후 공제액을 계산해 한도 300만 원을 넘었다면 다시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함께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추가로 절세에 대한 Tip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총 급여액	사택지원, 회사가 준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상품권 등은 합산 안됨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이 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 산후조리원, 미용, 성형수술 등은 제외,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는 공제 가능
인정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미성년 형제 자매 등도 부양하는 경우엔 공제 대상임,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 가능, 다만 임대주택과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소급해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등은 급여가 많은 쪽이 받고, 최저 사용액을 넘겨야 하는 조건이 붙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공제받는 편이 유리, 부부 한쪽의 과세 표준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도록 조정이 유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에 활용하면 도움,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번에 목돈을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등도 필요함,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스쿨버스 이용료 등은 제외	차감징수세액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뒤에 한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내용

우선 가족들이 내는 기부금을 잘 챙겨야 한다. 그동안은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나이 요건이 없어져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0세 넘는 자녀, 60세가 안된 부모님이 낸 기부금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혜택이 줄어든다.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줬던 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졌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각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주기로 했다. 그러므로 이미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카드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포인트를 쌓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다. 내후년 2018년 2월에 바뀌는 제도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

을 수 있다.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 내년부터 내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어난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준다. 최근 3년 동안의 공제 항목별 현황을 비교해 주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주니 이용하여 보다 많은 환급을 받기 바란다. WIN CLASS

경상수지 흑자국, 한국 바로보기

경제뉴스의 대부분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쏠려있다. 그 여파로 세계 각 국가들은 불투명성한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 과거처럼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니까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경상수지 흑자는, 설령 불황형 흑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것일까?

글 김홍겸(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수석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경상수지¹⁾(current Account)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상수지 흑자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혹은 경제수장)의 업적을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크기에 비해 한국의 그것이 더 크다고 우월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를 국가의 부(富)와 동일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전 15~18세기 제국주의(그 당시는 중상주의)²⁾ 시절에는 금과 같은 재화를 국가가 얼마나 보유하고 축적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외식민지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린 영국제국의 경우 인도·중국 등과의 식민지 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화를 축적한 영국제국은 국가의 경제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미국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美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자본주의가 정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재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사람들이 '효용'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따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양에 비해 그들이 생산해 낸 제품을 더 많이 수출했음을 의미한다. 수입을 초과하는 수출로 인해 외화를 벌어들여 재화를 축적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아 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꼭 좋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를 결정짓는 건 수출기업의 이윤 뿐만 아니라, 경제 내 국민저축과 투자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이고,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이다. 투자에 비해 국민저축이 많은 국가, 즉 여유자금이 있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민저축에 비해 투자가 많은 국가, 즉 자금이 필요한 경상수지 적자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원리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양에 비해 그들이 생산해 낸 제품을 더 많이 수출했음을 의미한다.



는 연결된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는 자본수지가 적자이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자본수지가 흑자이다.

현대 자본의 관점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오랫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라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경기 사이클이다. 세계 경기가 바닥을 딛고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서(자본수지 흑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반대로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본수지 흑자보다는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빌리고 있는 자금을 대해 상환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갚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닥을 찍고 상승한 미국을 보면 완전한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의 국가들을 보면 아직도 어려운 시점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 외 국가들의 경기둔화 탈피를 위한 몸부림의 끝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한국도 가계부채증가와 내수부진,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WIN CLASS

1) 경상수지(經常收支, balance on current account) :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치. 자본수지, 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국제경제 상황을 나타내

2)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국가의 보호로 무역, 특히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사상 및 그러한 사상에 기초한 경제정책

신혼부부 재테크 Q&A

재테크를 실천할 때에는 계획하는 것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계획한대로 실천하되 중간 중간 어떻게 실천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다면 원하는 재무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신혼부부의 상담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글. 이진원(BK기업은행 개봉북자점 VM팀장)



Q

안녕하세요 올해 5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으로 집은 마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두 명 정도 낳을 계획이며 기회가 된다면 네 가족이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직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비, 어학연수 비용 등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둘이 합쳐서 연간 실 수령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저희 가족의 월 지출 내역은 생활비 300만 원 정도이고 그 동안 모아왔던 적금은 결혼자금으로 전부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새로 금융상품에 들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에 얼마씩 넣어야 할지, 자금 지출금액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혼부부만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소득절벽 기간을 고려한 유연성을 갖춘 절세상품에 분산투자

저축목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구입 문제가 해결되어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간과 금액 면에서 보다 여유롭게 저축 포트폴리오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의뢰인의 계획 중 출산 및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절벽에 대비하는 자금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간 실 수령액이 약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대기업의 특성상 이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연말 성과급 등이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 기준으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준으로 저축계획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일시 성 성과급 등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월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약 800만 원 정도에서 생활비 3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 기준으로 저축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생활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생활비 절감 및 연말정산시 보다 많은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자녀를 출산 예정이므로 배우자의 경우에 약 3년 동안의 소득절벽 상태를 맞이하게 되므로 이 시기를 대비한 목적 자금 마련 및 납입이 유연한 상품으로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은 무조건적인 고금리 상품보다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및 세액공제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기간 및 금액을 분산투자 하여 목표자금 및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기 3년 이내에 특별히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 없으므로 3년 이내 단기적금을 가입하여 출산 등의 단기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중기적으로는 적립식펀드, 일임형 ISA,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비과세를 활용한 투자수익을 증

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10년 동안 총 한도 3천만 원까지 매 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통해 인도, 베트남, 중국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국내주식형펀드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임형 ISA 역시 통산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고 200만 원 초과수익은 9.9%로 저율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와 더불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상품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을 통한 자녀 교육비 자금 및 은퇴자금 등을 마련하고, 연금저축 및 개인IRP 등의 상품가입을 통해 연말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등의 소득절벽 상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

	개인IRP	연금저축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급여 수령자	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 1,200만 원까지 납입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RP 추가 납입 1,200만 원 합산)
세액공제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 400만 원 한도

상품 가입 시 꾸준한 납입이 필요한 보험보다는 납입이 유연한 연금저축펀드나 신탁 등의 상품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기에 납입을 중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개인IRP 상품에 가입을 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IRP 가입 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상품 400만 원이 포함된 한도로 각각의 상품특성을 잘 따져보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비중을 달리하여 가입하면 더욱 효과적일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금상품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충도해지시나 연금 이외로 수령 시 원금손실 혹은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하나의 계좌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통장 쪼개기를 통해 여러 계좌를 만들어서 금액을 분산하면 긴급자금 필요시 필요한 규모에 맞춰서 분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정적인 수입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가입기간을 우선 분산한 후에 각 기간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절세 상품 위주로 편입을 하고 연말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 ELS, 사모펀드 및 특정증권신탁 등에 가입하여 운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N CLASS

맞춤형 포트폴리오(부부합산)

(단위 : 만원)

금융상품	금액	비중	가입기간	가입목적
MMF	30	6%	수시	비상자금 및 휴직기간 대비
정기적금	50	17%	1~3년	단기 필요자금 마련(출산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40	8%	수시	고금리 및 주택청약 대비
적립식펀드	20	4%	3~5년	안정적인 투자상품 운용
일임형ISA	60	12%	3~5년	일부 비과세 및 자금 운용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50	10%	5~10년	비과세 및 투자수익 증대
저축(양로)보험	50	10%	10년	연복리 비과세를 통한 자녀교육자금 마련
보장성보험	20	4%	15~20년	의료실비 및 질병/상해 보장
연금저축보험,펀드	70	14%	20년	연말 세액공제 및 노후준비
개인IRP	50	10%	20년	연말 세액공제 및 노후준비
연금보험	60	12%	20년	비과세 노후자금 마련
ELS 및 사모펀드	여유자금	-	1~3년	고수익 투자상품
특정증권신탁	여유자금	-	3~6개월	단기 여유자금 운용
총 금액	500만원	100%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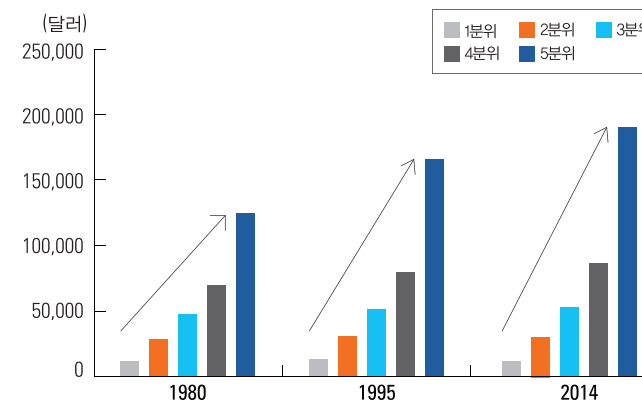
지난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r. Trump)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 전까지 그는 정치나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판의 이방인(outsider)이었다. 부동산을 통해서 큰 부를 일구었고, 몇 차례의 방송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는 준비된 대통령 감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열한 공화당 경선을 거쳐, 퍼스트 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외무부 장관)까지 지낸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쳤다. 정치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긴 셈이다.

글: 정성태(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문 책임연구원)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트럼프 당선으로 이어져

왜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거부하고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을 정도로 경제적 여파가 컸다. 실업률은 한때 10%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증가한 영향도 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진 반면 상위 0.1%나 1%의 소득은 오히려 높아졌다.

미국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변화 - 불평등도 확대



주: 2014년 기준 실질소득
자료: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U.S. Census Bureau

사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 불평등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은 가장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정체하거나 증가율이 크게 낮았다. 이처럼 불평등이 확대되었으나 2008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부채 확대로 미국의 중하층민들은 그럭저럭 버텼으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불만을 폭발시킨 셈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기반인 오하이오(Ohio)나 위스콘신(Wisconsin)같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쇠락은 더욱 심각하다.

반면 미국정부는 대형금융기관을 규제하느라 재정적자를 크게 늘렸다. 국가부채를 두고 정부가 폐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치는 엉망이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신경도 쓰지 않는 기존 정치권의 상징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 득표수는 클린턴이 더 많았고, 트럼프 지지

자 중에도 그의 언사와 행동이 무례하고 대통령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 다만 미국인들은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통한 변화를 원했던 것이다.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성은 없는 트럼프 정책

그렇다면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약속했는가. 그의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우선으로'(Make America Firs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였다. 즉 미국인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미국을 다시 강대하게 만들자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려고 했던 전후(1945년) 미국의 대외정책을 뒤집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1)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2)환율을 조작하여 미국 제조업을 파산으로 몰아갔던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3)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범지구적 차원의 모든 협력(예를 들어 파리기후협약, 북미자유협정, 한미FTA 등)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국내 정책은 한마디로 ABO(Anything But Obama, 오바마 정책 뒤집기)와 '레이건노믹스의 재림(Reagonomics)'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1)건강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Obama Care)를 폐지하고, (2)에너지 관련 규제를 없애고, (3)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1980년대 레이건 정책을 계승하여 (1)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2)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3)규제철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모순이 되는 정책도 많고 실현가능성은 의문

사실 트럼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공약집은 없다.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발간한 Crippled America(질려받은 미국)가 공약집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준비가 덜 된 대통령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약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단적으로 재정지출은 늘리면서 균형재정은 달성하겠다고 하며 그 방법은 성장이라는 식으로 넘어간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중국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은 담을 쌓겠다는 주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을뿐더러 미국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제품에 관세를 그만큼 올려버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장 커지고, 그 제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가격도 비싸고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이 워낙 과격한데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순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분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부처의 장관이나 책임자가 선정될 때마다 트럼프의 정책방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면 미국의 정책기조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라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은 과잉 상황이다. 조선, 철강, 석탄 등의 업종에서 공급과잉이 일상적이며 가격도 200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은 결국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국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보복 대상이 중국이고,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간재라는 점은 한국에 특히 불리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인프라투자(10년간 1조달러)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현실화되는 경우 연간 GDP는 0.1~0.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해지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은 과잉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은 결국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국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보복 대상이 중국이고,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간재라는 점은 한국에 특히 불리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는 하락하고 친환경 투자는 주춤할 듯

트럼프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에너지정책 폐기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트럼프는 연방정부 소유토지에서 셰일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Keystone 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지한 바 있다. 반면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입장인 트럼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및 풍력 전기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각종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환경안전청(EPA)을 폐지하고 UN의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출연금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산유국일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은 미국의 셰일개발을 저지하고 석유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고 그 결과 유가는 1배럴당 40~5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셰일개발은 규제보다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트럼프 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유가는 당분간 상승보다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지금도 재정적자로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있는 산유국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對이란 제재를 강화할 경우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져 원유가격은 다소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장기화될 듯

미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할 때는 올랐다가 트럼프가 우세할 때는 폭락했다. 그러다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미국주가는 올랐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도 했고,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미국 금리도 상승했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대미 주요수출국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해당국 경제에 트럼프 당선이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탓이다. 국내 장기금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 탓으로 판단되며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유추한다면
트럼프 당선은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의한 교역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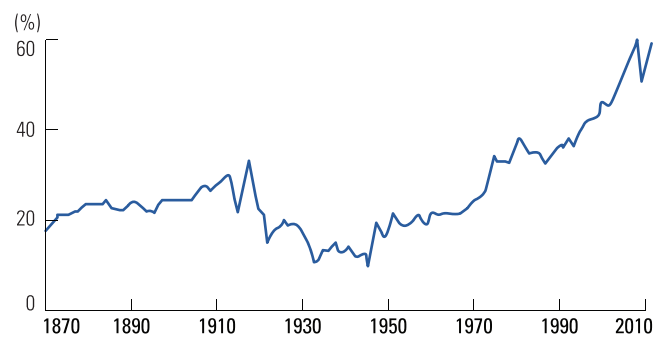
환율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미국으로의 글로벌 자금회귀 가능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이제 거의 달러화와 같은 수준(parity, 1:1)으로 내려왔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의 페소화는 한때 10% 가까이 급락했다. 원화 환율도 트럼프 당선 이후 3% 가까이 절하되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유추한다면 트럼프 당선은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의한 교역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에게 설상가상이다. 물론 트럼프의 공약이 온전히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 뒤에 있을 하원 전부와 상원 1/3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트럼프의 경우 재선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일부 반발하

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 구조를 보더라도 국가간 의존도가 심화되어 한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이는 자국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여러 설화에 시달린 대통령을 뽑은 민심이 다음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넘어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WIN CLASS

전세계 GDP대비 수출입 비중



자료 : Klasing and Milionis(2014), Penn World Table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자료. 마케팅전략부 투신상품팀

해외 채권형(KP)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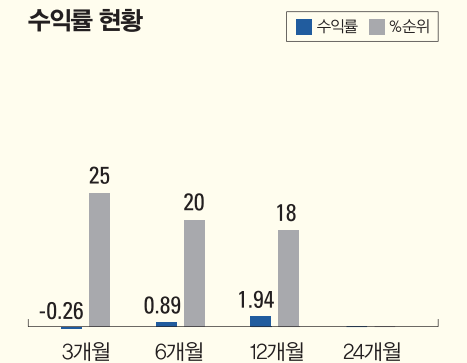
- 주로 미국달러로 발행된 국내우량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동일기업 국내채권보다 가산 금리가 더해져 더 높은 수익을 추구
- 환헤지 여부에 대한 투자자 니즈에 따라 환헤지형(H)과 환노출형(NH) 선택이 가능

채권 혼합형(성장주)

NH-Amundi Allset 모아모아15

- 주식편입비중을 10%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존 채권혼합형펀드보다 안정성을 높이고 금리+α의 수익을 추구
- 공모주, 블록딜 등 이벤트 발생시 주식비중 최대 15%까지 확대 가능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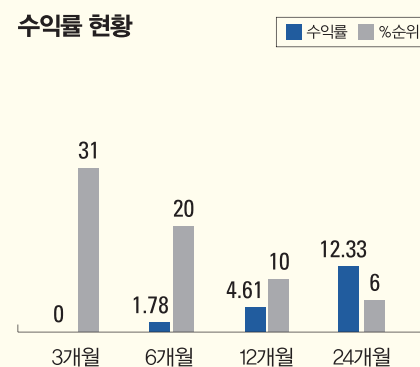


주식 혼합형(배당+옵션P)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 배당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채권이자 등 안정적인면서 꾸준한 현금수익 + 우선주/배당주의 가격상승을 통한 추가수익 기대
- 수익 기여도가 큰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 차익 비과세로 양호한 절세효과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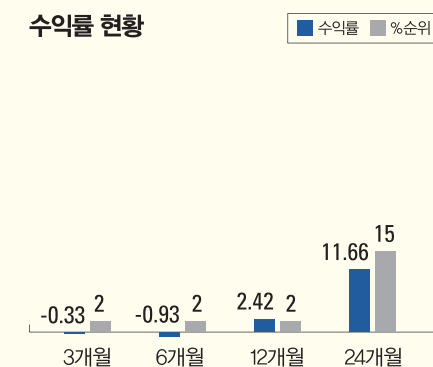


주식형(가치주)

한국투자 중소밸류

- 성장주보다는 경쟁력 있는 우량 가치주 중심의 장기투자를 통해 반복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추구
- PER보다는 기업의 현황이 반영된 PBR 중심으로 투자종목을 선별하는 등 실질적 지표에 주목하여 엄선된 우량종목군 중심의 장기 투자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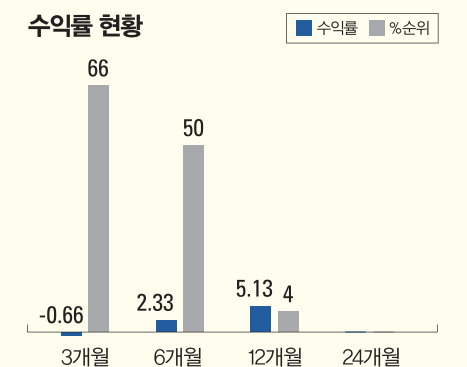


해외 주식형(글로벌)

IBK 다보스 글로벌고배당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100대 글로벌 지속 가능경영기업이 투자 대상
- 선진국 위주 포트폴리오로 미국 금리인상으로 선진국 수혜 기대

수익률 현황



미래의 먹거리 '다세대 리사이클링'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물자산 투자에 쏠림현상이 심해졌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가 급증하는 이유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면서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글: 최영준(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과장)



정부에서는 지난 8·25가계부채대책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효과가 없자 11·3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13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 후에 나온 한 번의 규제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고수익을 위한 투자처가 되어버린 강남의 재건축 시장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고수익을 위한 투자처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4년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6년 6월 3.3㎡당 1,853만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수준을 갈아치웠다.¹⁾ 2016년 한해 동안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서울내 아파트 상위 10곳²⁾의 아파트는 평균 3.2억 원이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은평구에 소재한 아파트 가격은 1천만 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돈이 될 만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적부족시대를 지나 질적부족시대에 접어들었다. 베이비붐과 에코세대의 본격 수요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래 주거 트렌드의 변화³⁾에 따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자기만족적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찾는 경우가 많

아졌다고 한다.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주변환경의 쾌적성, 첨단 기술을 통한 주거가치 향상, 사회 전반에 소득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 심화됨에 따라 새로워진 주택 유형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미래의 주거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

부동산이 아닌 대체상품 투자를 위한 여타 채테크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다세대 주택이 앞으로 주택·건축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은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건축포럼⁴⁾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다세대주택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각종 제언을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서는 정비구역을 지

1) 부동산114(2016.09): 서울 아파트 가격 직전최고치 3.3㎡당 1848만원(2010.03)
 2) 아시아경제(2016.9): 몸값 뚝 아파트 상위 10곳 중 7곳 '압구정 재건축'
 3) 주택 산업연구원 '앞으로 10년, 미래주거 트렌드, 김지은 책임연구원 (2016.05): 수요자는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주거특성은 실속형과 사용가치 중심형으로 변화예측
 4) 미래건축포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관 (2016.10): '국민이 행복한 미래의 다세대주택'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림

올해 가격 상승한 서울내 아파트 상위 10곳

출처: 부동산114

위치	아파트명	전용면적(㎡)	2015년12월25일 가격(만원)	2016년9월2일 가격(만원)	상승폭(만원)	총가구수	입주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5차	82.2	14억4000	18억	3억6000	224	1977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	84.9	13억7500	17억2500	3억5000	766	1983년 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	162.9	20억2500	23억7500	3억5000	480	1976년 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142.6	22억5000	26억	3억5000	180	1982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2차	196.8	25억5000	29억	3억5000	480	1976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83.4	24억7500	28억	3억2500	1924	1982년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1차	141.5	14억6500	17억7500	3억1000	398	1981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82	12억	15억	3억	432	1976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7차	144.2	20억5000	23억4000	2억9000	560	1979년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	82.5	13억	15억5000	2억5000	888	1980년 5월

※가격은 거래시점, 층별, 동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파트 기준(단지규모 100가구 이상, 개별 면적 규모 107가구 이상)

정하고 낮은 집을 허문 뒤 새 건물을 올리는 구도는 개발비용, 금융비용, 주민동의 등의 이유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실제로 전국의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방식이 잇따라 백지화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뉴타운 대안 사업도 정착하지 못하면서 노후 주택지가 슬럼화 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다세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주택·건설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59.9%)가 압도적이지만 다세대주택⁵⁾(11.6%)의 규모도 상당하다. 주로 '빌라'라고 일컬어지는 다세대 주택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거의 쾌적성과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택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층부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SH공사에서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세대주택의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건물 관리의 어려움, 주변 환경의 쾌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SH공사에서는 10·100·1000룰⁶⁾을 적용하여 기본 개발단위 합필을 통해 개발 진행 후 남는 잉여공간에는 앵커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함으로써 다세대·다가구 주택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환경을 끌어올려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은평구 구산동에 들어선 도서관 마을(구립도서관)은 기존의 도시조직 그대로 되살려 리모델링한 사례로서 길으로 보기에 새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서 지은 건물로서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전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미래 주택·건설시장의 패러다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된다.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구립도서관)

다른 사례로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받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감내 풍경 프로젝트는 폐·공가 3개소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과 주변 공간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주거지 재생을 위한 중요한 실천수단으로서 그 가능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 수상의 배경이다.

⁵⁾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09) : 국내 다세대 주택 규모 189만여가구
⁶⁾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저층사업기획부(2016) : 10필지·30가구 규모 개발단위, 100필지·300가구 계획단위 마스터플랜, 1000필지·3000가구 규모의 관리단위 설정



부산 감천문화마을 감내 풍경 프로젝트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지의 새로운 주거정비 사업 모델로서 버려진 주택을 활용하는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집주인리모델링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시장은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시장으로서 품질이나 안전에 있어서 기준이 취약하고 보증제도도 불완전하다 보니 시장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눈여겨 볼만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우수효과(Pump Effect)⁷⁾를 유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8곳의 재생활성화 지역⁸⁾을 선정하여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계획·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경리단길과 가까운 용산 해방촌, 북서울 꿈의숲과 맞닿은 장위동의 저평가 된 노후주택의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⁹⁾이 이루어진다면 투자가치로서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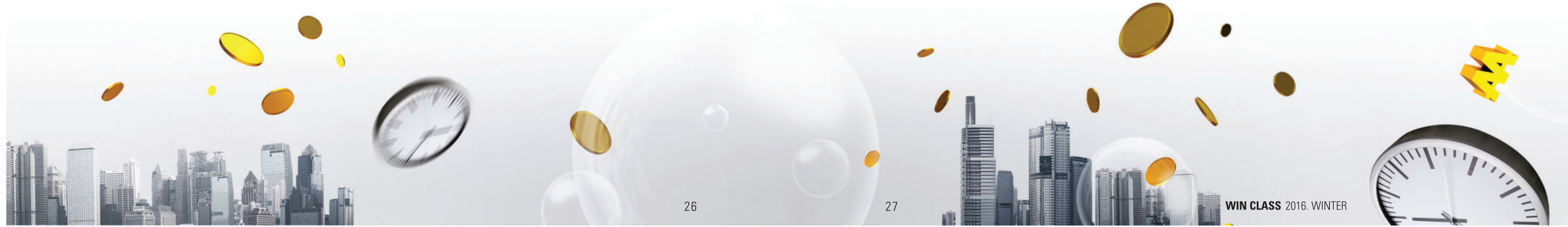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에서 공공의 재정과 주민협의를 중심으로 저층부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과 잉여토지는 주민역할을 강조하는 거점시설(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센터, 작



서울형 도시재생 1호 모델인 창신·송인 일대 마중물 사업의 결과물로서 주차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창신 소통 공작소 전경.

은도서관, 택배함, 공동작업장)에 재투자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노후된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리사이클링을 통한 신선한 변화는 새로운 투자처이자 주택·건설시장의 신규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N CLASS

⁷⁾ 우수효과(Pump Effect) : 마중물효과라고도 하며 불경기의 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통해 자금을 주면 이후에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경제가 저절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됨을 일컫는 효과(출처: 네이버사전)
⁸⁾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2016): 재생활성화 지역 - 창신·송인동, 용산 해방촌, 구로 가리봉동, 동작 상도동, 송파 암사동, 마포 신촌, 성동 성수, 성북 장위동
⁹⁾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2015.08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공동발의(2016.11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예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 용적을 완화, 소규모(1만㎡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단지 대상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Valuable Class

PB센터 소개와 품격 있고 여유로운 삶의 지혜로운 설계를 돕기 위한
교양 · 문화 · 예술 · 여행 관련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 | | | |
|----|--------------|---------------------------------------|
| 30 | VIP 성공스토리 | 엘림아트센터 이현건 회장의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 |
| 36 | 힐링 인문학 |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
| 38 | 리더 멘토링 | 현혹될 것인가, 통찰할 것인가? |
| 42 | STAR PB를 만나다 | 신뢰의 이름, IBK기업은행 스타PB |
| 48 | 휴식을 위한 취미 | 혼자 놀 줄 알아야 인생이 즐겁다 |
| 50 | 문화 트렌드 | 제주로 남해로 동해로, 문화 귀촌의 바람이 분다 |
| 52 | Healthy life | 장내 미생물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 |
| 54 | 문화예술여행 | 우리가 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
| 62 | 골프가이드 | 겨울바람을 가르는 펀치샷 & 넉다운샷 |
| 66 | 책 읽는 즐거움 |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

엘림아트센터 이현건 회장의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사는 방법



엘림아트센터 이현건 회장이 들려준 것은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음악이 아니었다. 많은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그는 이제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며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소중한 VIP 고객인 이현건 회장이 들려주는 음악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이원복 사진. 황원

엘림아트센터, 아름다운 음악을 꿈꾸다

인천 청라지구에 새롭게 들어선 엘림아트센터를 찾아가는 길에는 이제 막 세상을 찾아온 겨울이 낮게 웅성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낮은 건물과 얇은 길을 지나 엘림아트센터 앞에 서니 이현건 회장이 손을 내밀며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오는 길이 멀었죠? 이곳이 도시를 새로 지은 곳이라 바람 소리도 크고 다른 곳보다 날씨도 추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6층과 7층, 8층에 마련한 엘림존에 올라가시면 남다른 즐거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현건 회장의 손에 이끌려 올라간 6층 엘림존 내 챔버홀(중공연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흥건하게 넘쳐흐르고 있었다. 음악의 주인공은 1920년대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이다. 그녀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에 맞춰 그녀의 히트곡인 〈These Foolish Things〉를 들려주고 있다. 한참을 음악에 취해 있을 때 문득 이현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빌리 홀리데이가 바로 옆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죠?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면 빌리 홀리데이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살아 있는 그대로 우리 가슴을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엔지니어로 일하며 많은 기계를 접했던 이현건 회장은 유난히 소리와 밀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계 역시 조금만 소리에 이상이 생겨도 금방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그렇게 소리와 밀접한 삶을 살다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스피커의 신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웨스턴 일렉트릭(WE)의 극장용 음향기기들이다.



“1930년대 웨스턴 일렉트릭의 극장용 앰프는 누구나 탐내는 소중한 보물이죠. 하지만 당시 극장에 불이 많이 나고 또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면서 소중한 음향기기들이 함께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현건 회장은 지극한 관심과 정성으로 엘림아트센터 6층 챔버홀과 함께 7층에도 4개의 음악실을 꾸민 후 웨스턴 일렉트릭의 음향기기들을 설치해 놓았다. 이유는 오직 하나,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이다. 그는 재즈 뿐 아니라 클래식, 국악, 가요, 팝송까지 음악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성한 기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엘림존 6층,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대공연장을 꾸렸다. 요즘은 오는 12월 9일부터 펼쳐질 ‘엘림홀 개관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12월 9일에는 음악평론가이며 <TV 예술무대>의 새로운 MC로 사랑받는 장일범 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12월 10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프랑스 샹셀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과 신동일의 파이프 오르간 콘서트, 양성원과 레봉백의 크리스마스콘서트,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임동혁의 피아노 독주회로 아름다운 끝을 마무리하게 된다.

오직 자수성가로 이룬 부와 명예

이현건 회장은 스스로 가난하고 아픈 세대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로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유년의 기억은 쉽게 떨쳐

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덕이 부자일리가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산에 뛰어 올라가면 그곳에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흔적이 역력해서 총알과 탄피 같은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현건 회장은 대규모 공장에서 유체나 액체, 기체 흐름을 제어하도록 해주는 밸브 제조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

남다른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던 그는 ‘영택’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며 독립을 선언한 뒤 이 모든 밸브 작동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컨츄럴 포지셔너 밸브’를 개발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주위에서요? 주위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것도 아주 많이 반대했습니다. 다행히 밸브에 대한 노하우와 주위의 도움 덕분에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현건 회장이 원하던 밸브를 개발하여 3백억 원 규모의 안정된 매출을 올린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맨손으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주위를 탓할 때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언젠가는 화살처럼 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영택을 운영할 때나 엘림아트센터를 설립한 지금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다그치는 일 없이 자신이 먼저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그에게도 세상은 때로 답답하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잊고자 바이크에 몸을 싣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이현건 회장은 바이크는 '위험한 탈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바이크의 무게와 속도를 이겨내야 하는 중압감도 중압감이지만 돌 하나만 잘못 밟아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크에 앉을 때는 자신의 오감을 다 동원해야 하며 자신 뿐 아니라 주위의 안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할리데이비슨의 엔진소리와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나타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할리데이비슨을 사랑하다보니 지금 소장하고 있는 바이크가 44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BMW가 세 대 있고, 아주 옛날식의 클래식한 자전거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전시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택을 운영할 때는 바이크를 좋아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마음에 드는 할리데이비슨을 골라 타도록 한 뒤 먼 곳까지 함께 라이딩을 즐기던 일이 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아내이자 엘림아트센터의 관장인 김정미 씨의 반대로 할리데이비슨을 조금 멀리하게 됐다며 아쉬운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연주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된 엘림존 대공연장

이현건 회장과 그의 아내 김정미 관장은 어린 시절 동갑내기 소꿉친구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아직도 두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질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은 엘림아트센터를 설립하면서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제가 엘림아트센터에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6층에 챔버오케스트라(10~20인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대공연장이라고 해도 겨우 300석 규모에 불과하지만 챔버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마이크 없이 어쿠스틱 연주가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내인 김정미 관장을 바라보며 자신은 목소리만 높이고 다녔을 뿐이지 엘림아트센터를 채운 섬세한 정성은 모두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개관 공연 일정, 섭외, 홍보, 티켓

판매, 공연 진행 등이 모두 김정미 관장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엘림존 대공연장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파이프 오르간까지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서 전문가들이 개관 공연에 맞추기 위해 벌써 3개월 째 아름다운 소리를 맞춰나가고 있다. 김정미 관장 또한 엘림이라는 뜻 그대로 엘림아트센터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현건 회장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내보였다.

엘림아트센터의 대공연장은 두 사람의 이런 노력에 걸맞게 벌써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연주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을 꾸민 까닭이다. 개관 공연에 참여하는 첼리스트 양성원 씨 또한 음악이나 공연산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해오던 이현건 회장이 어떻게 공연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연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가 영택을 운영하면서 영국에 있는 Rotork라는 산업용벨브 제조회사에게 인수제의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영택을 매각하게 되면서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현건 회장은 영택을 매각하면서 얻게 된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크고 화려한 오디오를 방 안에 숨겨두고 아끼듯 혼자 듣는 것이 좋은 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타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일까?' 그는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들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이 되고 웃음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엘림아트센터를 개관한 뒤 아내인 김정미 관장과 함께 개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곧 사람들은 살 끝을 스치는 추운 겨울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이끌려 엘림아트센터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하얀 턱수염이 근사한 이현건 회장은 멋진 음악을 사람들의 가슴마다 심어줄 것이다. WIN CLASS



조세미 김포지점 VM팀장



회장님께 인생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현건 회장님께서 김포지점을 찾아오실 때는 항상 조그맣고 귀여운 차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조용하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십니다. "나 이것 좀 처리해 줄래요?" 우리 김포지점에서 첫 손가락 꼽히는 VIP이지만 한 번도 큰소리를 내시거나 불편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엘림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장학생을 배출하고 계신데 늘 내색도 하지 않으십니다. 회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족함이 많을텐데도 BK기업은행은 친근하고, 정 많은 곳이라며 칭찬해 주실 때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현건 회장님은 VIP 고객이기 전에 인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저도 엘림콘서트를 개관 공연 티켓 준비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원한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봐도 좀 괜찮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나 꽤 소박해 보이는 이 정도의 삶을 실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우리를 절망과 무기력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불행하게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 보는 것도 좀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정태연(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태도

적어도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가 지나친 사회비교이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 승진시험에서 받은 80점이 어느 정도 잘한 것인지 혹은 연봉 4천만 원이 어느 정도 많은 소득인지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상대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비교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매사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뭐든지 비교해서 자신이 항상 남들보다 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긴장과 초조 혹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교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러한 측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나를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며 그 속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비교에 민감하고 경쟁의식으로 무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물론 목표가 있을 때에만 살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목표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과도한 목표는 우리 삶

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옥죄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그 결과 당사자는 불안, 절망, 우울, 수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쉽다. 또한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인해 자신이 그 목표를 능동적으로 통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특정 대상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가령, 지금의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는 맞지만 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동료가 일처리는 잘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적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의 인상형성이나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듯이, 하나의 긍정적 측면보다 하나의 부정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더 주의 깊게 정보처리하고 더 정확하게 오랫동안 기억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부정적 측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뿐더러, 지금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이다. 그래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경계와 긴장만 경험할 뿐 서로 신뢰하며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 측면의 효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단순하지만 긍정적 측면을 좀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동일한 현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가령, 의사결정을 느리게 하는 사람을 결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신중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과도한 낙관주의는 제외하더라도, 주어진 현상을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높고 신경증이나 불안과 우울은 낮다. 물론, 비판주의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주의는 영원히 부정적 정서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태도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과 갈등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현재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을 현재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존재하는 전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적어도 본인은 사회의 평가와 비교의 잣대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놓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기 존중의 상태가 바로 자기 수용이다.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회적 평가나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삶의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나의 부족한 모습, 숨기고 싶은 열등의식 등 부정적인 모습을 가감 없이 지금 인정할 수 있다면, 기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비난조차도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비교로부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남들과의 비교에 덜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우월감에서 오는 자기존중 혹은 우월함이 크게 중요치 않게 된다. 또한, 현재의 자신을 인정할 때 미래의 목표를 즐겁고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이루어지면 무조건적 타인수용도 가능해진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삶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그러한 단점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단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부정적 측면에 민감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다.

확인적인 가치나 목표에서 벗어나 삶이 가지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삶의 기준은 물질적 풍요, 지위와 권력 등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동시에 단순하고 소수에 불과해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열등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WIN CLASS

현혹될 것인가, 통찰할 것인가?

현상 뒤 숨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글. 윤성훈(1등의 통찰 편저자)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다. 저마다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뛰어난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보과잉의 사회일수록 복잡한 '현상'만 눈에 들어오고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금세 온갖 오류로 초토화된다. 세계 1% 경영학 연구 기관인 MIT 슬론스쿨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뇌가 이런 사고의 오류에 쉽게 빠지도록 습관화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전략가가 이런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에 MIT는 인간의 통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개발했다. 이 사고법은 1972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성장의 한계》를 통해 100년 후 지구의 파멸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해 성장지상주의 담론에 제동을 거는 등 경제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다.

사람은 의외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잘못된 생각 습관부터 알아야 한다. 그 중 가장 흔하고 초보적인 것이 바로 현상의 반대를 결론으로 삼는 습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제품이 잘 안 팔린다 →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원인을 찾는 대신 현상의 반대를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살이 찼다 →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자'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론에 만족하는 습관 역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구체성이 결여된 답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SWOT 등의 프레임워크를 그려놓고 그것만으로 깊이 생각했다고 만족하는 습관, '그 사람은 논리적이야 → 이공계 출신이거든'이라는 식으로 카테고리 분류로 생각을 끝내는 습관, 키워드에서 생각을 멈추는 습관, 초기 가설을 고집하는 습관 등이 통찰을 방해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잘못된 생각 습관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다.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 현혹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출점 전략에서 배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제안하는 사고법 중 하나는 '플로(flow)'와 '스톡(stock)'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것이다. 한 마

디로 '플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버리는 것이고, '스톡'은 욕조에 있는 물처럼 한 곳에 충분히 쌓여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스톡'으로 생각하느냐, '플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둘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스타벅스는 카페를 2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간과했다. 단순히 가게 앞 통행량만을 기준으로 새 점포를 냈는데, 이 전략은 머지않아 실패로 드러났다. 통행량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게 앞 통행량은 일종의 '플로'였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스톡', 즉 가게 앞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었다. 스타벅스는 실패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고, 바로 대책을 마련해 반전에 성공했다.

1등 두뇌 습관을 위한

'통찰력 사고'의 4단계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말하는 통찰력 사고는 크게 네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생각을 눈에 보이게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모델이란 어떤 현상을 만드는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간단한 개념도로 그린 것이다. 2단계는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1단계에서 만든 모델을 시간축에 넣어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를 '다이너미즘'이라고 부른다.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결정론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 설명만 들으면 왠지 가격이 한 지점에서 쉽게 결정되는 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다이너미즘으로 통찰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진동의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 3단계는 모델을 바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레버리지 포인트'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드는 지렛대의 원리처럼,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뉴욕 시장이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범죄 처벌을 강화한 것이 좋은 사례다. 마지막 4단계는 현실에서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다. 모델과 다이너미즘을 그리고, 좋은 해결책까지 찾아냈다 하더라도 현실에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에서 얻은 피드백으로 기존의 대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리더는 '분석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 더 많았고, 그래서 심리적 오류에 빠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리더라면, 그 원인은 이처럼 잘못된 생각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고차 판매가 늘어도

신차 판매는 줄지 않는다

위에서 간단히 소개한 것처럼 통찰력 사고의 핵심 중 하나는 '시간축'을 넣어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범하는 수많은 오류는 정지된 그림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와 신차 판매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단순히 생각하면 중고차 판매가 늘어나면 신차 판매가 줄어 들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고차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운전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오늘의 중고차 고객은 미래의 신차 고객이 된다. 즉, 중고차 구매의 증가는 미래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의 증가로 이어진다. 통찰력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사실을 꿰뚫어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렉서스, BMW, 아우디, 벤츠 등 고급차 제조사들은 공식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고차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정 제조사의 중고차에 만족한 사람은 다음에 같은 제조사의 신차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고차의 품질 향상은 급격한

감가상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의 불안감까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지해 있던 그림에 시간축을 더하면 중고차와 신차가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복잡한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MIT 슬론스쿨의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가장 MIT다운 수업으로 손꼽히며, 무려 60년 동안 통찰력 있는 리더를 양성해 왔다. 그 결과 200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무려 8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다.

MIT 슬론스쿨에서 MBA를 마친 이원재 전 희망제작소 소장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이를 토대로 전략을 짜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영 및 정책 결정을 하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고법이다"고 소개한다. 또 그는 "이 통찰력 사고를 통해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섬세하게 소통하는

것이 이 복잡한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다"라며, 이 사고법이 왜 리더에게 더욱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정보과잉의 현대사회에서는 '분석적 사고'보다 '통찰력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전경련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리더는 '분석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 더 많았고, 그래서 심리적 오류에 빠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리더라면, 그 원인은 이처럼 잘못된 생각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성과를 만드는 리더는

통찰하는 전략가

일본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 히라이 다카시 역시 "MIT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배운 후에야, 비로소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통찰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직관의 영역에서 추상적으로만 다뤄졌던 통찰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실무에 적용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많은 리더를 만나본 그는 세상의 리더를 '관리자형 리더'와 '전략가형 리더'로 구분한다. 그리고 특히 사람 좋은 관리자형 리더가 팀워크를 망치기 일쑤라고 말

한다. 그들은 흔히 부하직원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솔선 수범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팀워크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부하직원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일하기 편한 환경이나 사람 좋은 상사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하직원에게 중요한 건 리더의 행동이 아니라 리더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하직원은 리더의 목표를 따르므로써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짜는 일은 통찰력 있는 전략가만이 할 수 있다. 코피 아난 역시 '전략가형 리더'로서 통찰력을 발휘했기에 UN 조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통찰력 강화를 위한

훈련법

히라이 다카시는 통찰력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매일 아침 5분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연습은 신문 기사의 제목만 보고 기사 구성과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제목 뒤에 숨어 있는 모델과 다이내믹즘을 큰 틀에서 그려보면 통찰력은 저절로 향상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로 생각 모델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거 경험에서 배운 것으로 정확한 유추가 이뤄지면 이해는 단숨에 깊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재미있는 소재를 늘리는 것도 통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 본질에 다가갔다는 증거가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논리적 흐름이라는 그림을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고전을 읽으며, 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생각하면서 해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근원적 드라이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하자. 현상이나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그 아래 숨어 있는 다양한 요소의 역동적인 관계를 읽어내는 것이 통찰의 핵심이다. MIT의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당신의 통찰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WIN CLASS

신뢰의 이름, IBK기업은행 스타PB

변동성이 큰 경제상황 속에, 올바른 재테크 해법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때, 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해석하는 금융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은 좋은 선택 기준이 된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스타PB들은 TV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어려운 재테크 전략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온 경험이 있다. IBK기업은행의 스타PB 6인을 만나 PB로서의 생각과 자세를 들어본다.

WM사업부, VI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점'

WM사업부 김희순 팀장에게 IBK기업은행은 여전히 설레는 첫 사랑 그 모습 그대로이다. 본사 WM사업부에서 영업점과 VIP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연결고리의 역할을 통해 VI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한다.

글. 이원복 사진. 황원

요즘 김희순 팀장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VIP 고객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영업현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살아 있는 소리를 전해주는 것이다. 김희순 팀장은 목동이나 문래동처럼 고객들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오랫동안 능력 있는 PB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물론 VIP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목동에 계신 고객 분들은 여유 있고 세련된 여성 사모님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문래동지점은 날마다 쇠뿔치와 싸름하는 남성 고객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분들 모두 IBK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이며 VIP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향을 가진 VIP 고객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김희순 팀장은 세무, 금융, 부동산 분야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상품을 출시해 영업현장에서 VIP 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서이다. 특히 VIP 고객들은 기본적인 금융거래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자산까지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 영업현장과 접점을 꿈꾸는 김희순 팀장은 이미 전국에 있는 VIP영업점에 고객관리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 600개의 영업팀에서 같은 매뉴얼을 이용해 상황을 확인하고,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VIP 응대 방법까지 공유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다른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등이 모두 우리의 경쟁상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WM사업부는 VIP 고객들을 위한 확실한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VIP 고객들을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WM 사업부
자산컨설팅팀 팀장
김희순



고객과 비밀을 공유하는 방법

VIP 고객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 고객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도움을 얻고 있는 유금 VM팀장을 만났다.

글. 이원복 사진. 황원

유금 VM팀장은 현재 자신이 담당한 가장 중요한 업무로 VIP 고객들의 예금을 만기시까지 관리해 드리고 IBK기업은행에 다시 편히 재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VIP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은 역시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은 물론 주식과 부동산,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사실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VIP들에게 큰 매력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금 VM팀장은 또 반대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주지 못하는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IBK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VIP 고객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VIP 고객이라 해도 그분들 역시 남모르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자산과 사용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VIP 고객을 관리하는 VM팀장이라면 최대한 손실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고, 늘 VIP 가까운 곳에 필요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금 VM팀장의 환한 미소가 꼭 VIP 고객에게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액투자를 고민하는 고객들 역시 이 돈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소액 투자자라 해도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VIP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가장 좋은 투자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인간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다보면 또 다른 자산이나 가족,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회사에서 정해진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되, 늘 VIP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객의 사랑과 시선이 우리 IBK기업은행에게만 모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유금 VM팀장의 미소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영업부
VM팀장
유금



시장을 꿰뚫는 전문가의 안목으로

한남동WM센터를 찾는 고객 중에는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던 고객들이 많기에, 시장을 바라보는 식견이나 관련 지식도 상당한 편. 이 때문에 고객의 기대도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고인순



한남동WM센터
PB팀장
최철호

갑자기 방문한 고객과의 오랜 상담을 마친 후에도, 최철호 PB팀장의 눈빛은 또렷했다. 내년이면 한남동WM센터에 근무한 지 4년 차.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약한 고객들을 자주 만나기에, 그는 항상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객들은 구체적인 상품보다 시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례적인 내용이 많은 경제 관련 보고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를 두고도 고객의 관점과 금융전문가로서 최철호 PB팀장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 100% 확실한 예측은 없다지만, 분명 좀 더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 금융전문가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최철호 PB팀장은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해, 금융과 관련한 각종 키워드를 빠짐없이 훑는다. 금리와 환율, 무역수지, 통화량, 소비량, GNP 등 경제와 연관된 핵심 이슈를 순환적으로 파악하는 것.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고객 상담의 최종 지향점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대화에 따른 합의인 셈이다.

“많은 사람이 우수한 PB의 자질을 높은 수익률에 둡니다. 일차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이 현 시장에서는 좋은 상품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PB는 고객과 의견을 나누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최철호 PB팀장은 시장의 흐름을 긴밀하게 읽으며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특정 상품을 논하기에 앞서 해당 상품이 현 시장 상황에 적합한지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금융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안목은 TV 프로그램 생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검증됐다.

“저는 주로 고객자산가들에게 재테크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방송에서는 보편적인 재테크 원칙을 물어올 때가 많습니다.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산가들도 현금 흐름 확보 욕구가 큼니다.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놓으면 소비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최철호 PB팀장은 다가올 2017년의 시장 상황도 복잡다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이 고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는 그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싶은 순간이다.

최고의 PB는 No.1이 아닌 Only one

평생 일구어온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노후의 풍요로움을 결정한다. 이진원 VM팀장은 인생 후반전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그 자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허트 조언을 하지 않기 위해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고인순



개봉복지점
VM팀장
이진원

“대외적으로 IBK기업은행은 ‘기업 부문이 강하다’는 인식이 큼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안목과 조언에 따라 고객에게 더 큰 수익률을 돌려 드릴 수 있는 PB가 더욱 경쟁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 PB를 목표로 꾸준히 자격증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객을 만나면서도 틈틈이 공부에 집중한 결과, 이진원 VM팀장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와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를 포함해 무려 1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당시 성적도 상위권. 상담실 한편에 마련된 책장 가득 진열된 자격증과 표창장을 보며, 그가 지금까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증’받은 실력은 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특히, 지난해는 고객의 신뢰가 더욱 두터웠던 해였다. 2015년 5월에는 지역본부 월간 예금왕으로 선정됐고, 올해 초에는 2015년 퇴직연금 유치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연간IBK퇴직연금왕’으로 특별 승급 표창도 받았다. 금융전문가로서 그의 조언은 언론에 기고한 재테크 관련 칼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시장 흐름에 ‘족’을 세우고 있기에 수시로 달라지는 금융 현안을 ‘꼭’ 짚어 글로 풀어낸다.

“고객과 항상 나누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합니다. 가령 ‘100만 원이 있는데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나 ‘분산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같은 고객의 질문에 대답한다고 생각하면서 칼럼을 작성하죠.”

PB로서 그의 철학은 첫째도 둘째도 ‘진심’이다. 가끔 고령의 고객이 투자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자처해도, 고객의 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생각해보 것을 권한다. 덕분에 고객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적지 않게 받는다. 한 고객은 “지난해 달러 투자를 고민하며 여러 은행에서 상담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했다”고 증언한다.

얼마 전, 이진원 VM팀장은 입사 10주년을 맞이했다. 입사 지원 당시 작성한 그의 자기소개서 첫 줄에는 “최고의 PB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후 10년을 ‘최고의 PB’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며 고객을 만나왔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그 답을 깨닫고 있다. 최고의 PB란 ‘범버원 PB’가 아닌 ‘온리원(Only one) PB’라는 것. 그렇게 그는 대체 불가능한 온리원 PB가 되기 위해, 꾸준히 한 길을 걷고 있다.

깊은 신뢰로 동행하는 금융전문가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관계는 느리게 두터워진다.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박미선 PB팀장은 더욱 진중하게 고객에게 다가가며 고객의 마음속에 담긴 진짜 필요에 집중한다.

글. 정라희 사진. 고인순

한남동WM센터
PB팀장
박미선



반포자이WM센터
팀장
김탁규

최고의 PB가 되기 위해 꾸준히 달려온 시간

새해 결심도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10년이 넘도록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나이가 있다. 최고의 PB를 목표로 차근차근 역량을 갈고 닦아온 김탁규 팀장이 주인공이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고객이 있기에 그는 더욱 행복하다.

글. 유현경 사진. 고인순

박미선 PB팀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상품은 바로 '자신'이다. PB가 갖춰야 할 최우선 자질은 '신뢰'. 그래서 그녀는 한순간 반짝이는 실적보다 오랜 시간 동행하는 관계를 선택했다.

"고객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그 기간은 6개월이 되기도, 1년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과가 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비슷한 자산의 고객이라도, 성향에 따라 자산 관리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박미선 PB팀장이 고객을 이해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섬세한 관찰력과 남다른 기억력은 그녀만의 강점이다. 첫 상담 당시 고객의 옷차림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평소 취향이 어떤지도 관심 있게 살핀다. 사회적으로 일가를 이룬 고객이라면, 성공담에 귀를 기울인다.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응대하는 그녀의 다정함을 마다할 고객은 드물 것이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들의 관심사를 노트에 따로 기록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 저의 권유에 담긴 진심까지 알아주십니다."

섬세함은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여지없이 발휘된다. 경제신문을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문가 의견과 각종 데

이터를 근거로 한 요약 제안서는 그녀의 차별화 요소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고객이 읽지 않아도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요점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제공한다. 요약 제안서 작성에 익숙한 그녀는 YTN <국민신문고> 출연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 칼럼 기고도 자주 하며 IBK기업은행의 이름을 알고 있다. 최근에는 재테크 관련 대규모 행사인 2016 한경 머니 로드쇼에 나가 대중을 상대로 재무 상담도 진행했다.

"PB는 고객자산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를 지닌 사람입니다. 칼럼 기고나 대외활동을 통해서도 주제에 맞는 최적의 답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녀는 방카슈랑스 은행 도입 원년부터 활동하며 전국 1등까지 기록한 우수판매인이다. 부동산 관련 법규 변동에도 관심을 쏟으며 최적의 상담에도 주력한다. 그녀의 전문성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신입 PB·VM팀장 교육을 진행하며 VIP 고객 자산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녀의 바람은 '자신이 생겼을 때 고객이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은 PB'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앞으로도 그녀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한다.

"자산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두고 협력하는 관계다 보니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객이 믿어주시면 더 신이 나서 일하게 돼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PB를 목표로 자신의 능력을 쌓아왔다는 반포자이WM센터 김탁규 팀장. 입사 전,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갖고 한동안 세무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세무사 자격증도 그에게는 경쟁력 있는 PB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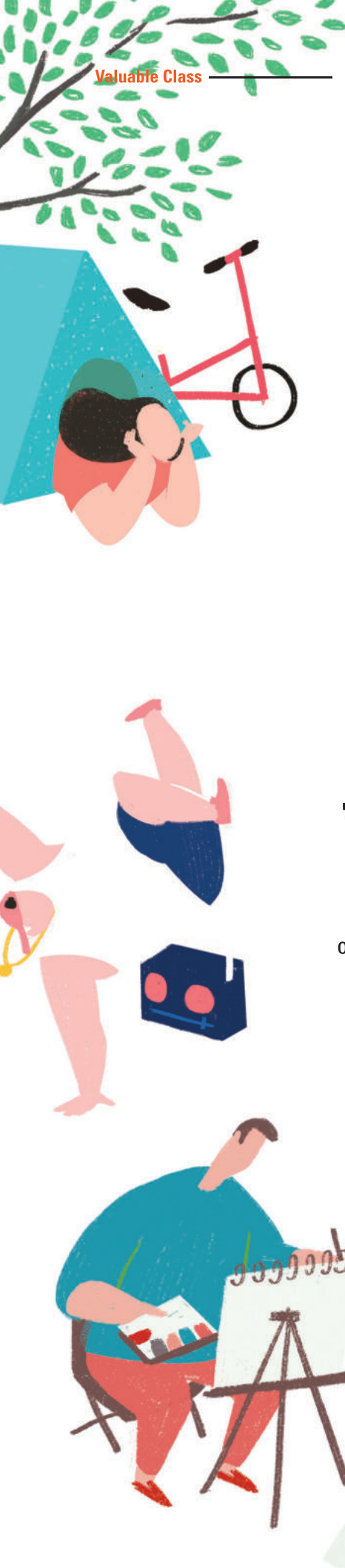
그는 2009년 IBK기업은행 내 PB센터로는 첫 출범한 강남PB센터의 개설멤버였다. 이후 WM사업부를 거쳐 목동PB센터,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반포자이WM센터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남에서는 개설위원이자 행원으로, WM사업부에서는 특기를 살려 세무사 상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점을 지원했고, 목동에서는 감리역으로 팀장을 도와 창구를 인출했다. 현재는 팀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 "PB관련 업무를 수직계열화해서 다 경험해본 셈이지요"라며 웃는다. 덕분에 그는 "세무, 상품, 투자자산 운용 등 다방면에서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뿌듯해 한다.

김 팀장은 몇 년 전부터 올빼미형이었던 생활패턴까지 아침형으로 개조했다. 새벽에 일어나 6시 출근을 하면 경제기사와 증권사 리포트를 체크한다. 그날 만나려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 운용을 위해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PB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담배도 끊었고, 필요한 자격증에도 도전하

고 있다. 그 결과 세무사 자격증 외에,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세무와 재무설계를 아우르는 상담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팔자 없고 달려가는 노력 덕분인지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은 그에게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강남, 목동시절의 고객들이 그를 찾을 정도다.

그는 언론에 재무관련 칼럼을 기고하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고객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직원들을 독려한다. 쉽지만 늘 빠르게, 금융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는 덕분에 금융 지식에 어두운 고객들도,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큰 도움을 얻는다.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PB를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 그의 포부가 궁극이다. "이곳에 온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아직은 고객들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부터는 쌓아왔던 역량들을 보여드리며 고객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반짝 성과가 아닌 길고 오래가는 믿음을 심어줘야 결과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꾸준한 노력으로 믿음을 얻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김탁규 팀장. 그의 또 다른 한해가 기대되는 이유는 마음먹은 것을 실행으로 증명해온 지난 시간들 때문이다.



혼자 놀 줄 알아야 인생이 즐겁다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은 없다.
 우리 삶은 언제나 끝날 수 있는 것이니 결국은 혼자 놀 줄 알아야
 나이 들어 우울증에도 맞설 수 있다. 조용히 자연과 벗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라는 얘기가. 살아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말짱 무효다. 혼자 놀 줄 모르고 늘 떼 지어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예고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니 우울쭈물하지 말고
 땀 흘리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이며,
 만나고 싶은 이를 만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 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인생에 미루어둘 행복이 어디 있으랴.

글. 남우선(MBC PD, 여행가, 평론가)



인생이 무료하다고?

영혼을 팔아도 될 취미를 활용하라

나는 어릴 적 교문 앞에서 팔던 병아리를 몇 마리 사서 집에 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용케 죽지 않고 자라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코흘리개 시절의 병아리를 시작으로 고등학생 때는 강아지도 열심히 키웠다. 그러다 아파트로 이사하고부터는 동물을 키울 수 없었다. 대신할 놀이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혼자 놀기 딱 좋은 취미들이었고 나는 취미를 열심히 키웠다.

혼자 노는 데 익숙해지면 의외로 혼자 노는 사람들끼리 모여 집단적 연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서로의 취미를 이해해주니 늘 화제가 만발하고 희한하게도 결속력이 강하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심하다. 가진 아이디어도 보여줘야 하고, 눈에 띄는 실적도 올려야 자리가 온전하다. 취미의 세계엔 그런 게 없다.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서로 못 도와줘 난리다. 재미있게 놀다가도 혼자 놀고 싶은 시간이 되거나, 자기에게만 처방된 투약 시간이 돌아오면 각자 일사불란하게 해산한다. 그 동네가 '취미의 세계'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의미심장하다. 살아오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고 물은 질문에 '평생 취미를 못 가진 것(18%)'이 1위로 꼽혔다. 더 많은 도전을 못한 것(15%)과 여행 부족(14%)은 그 뒤를 이었다.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 "나 이거 확 시작해버렸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라. 그것을 시작한 날, 흥분과 설렘으로 상승한 당신의 체온과 맥박을 기억하라. 저 높은 계단은 발을 디디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용맹할 정도로 자극적일 당신의 첫발을 잊지 마라.

좋은 취미는 인생의 구세주다

취미는 '편협'할수록 좋은 것이니, 오소독스하고 판타스틱하고 러블리한 취미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기 쉬운 도라키나 취미는 말하자면 케이블 TV의 가벼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만큼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의 취미는 좁고 편협할수록 좋다.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방황하며 애달프고 사랑해야 한다. 좋은 취미를 건사하고 누리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므로 폼 나게 살려면 일생을 바칠 편협한 취미를 고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떤 마약

보다도 중독적이지만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고, 매일 그것에 빠져 편식을 일삼더라도 몸에 해롭지 않다. 좋은 취미는 실로 영혼의 구세주요, 구원으로 가는 계단이다. 아이들에게만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다 큰 어른에게도 무슨 짓을 하느라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를 행위에 빠지는 게 필요하다. 이른바 생산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창조적 게으름'이 그것이다.

나의 취미 타령 끝에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라거나 "당신은 팔자가 좋아서"라는 핀잔이나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인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준다.

그는 "인간은 하루 네 시간만 밥벌이를 위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운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여덟 시간은 커녕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전쟁처럼 치러내야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러셀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러셀의 말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윤리'는 족쇄를 찬 노예의 것이지, 문명화된 사회를 사는 자유인의 것이 아니다. 진정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여가'이며 그 여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유인이나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러셀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찬양하는 창조적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은 개미와 베짚이 우화를 '게으름을 실천하는 베짚이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고, 일만 하며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유를 즐기는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 자식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예로 살아야 하는 나와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참다운 자유'다.

누구나 마음을 다 바쳐 하고 싶은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가슴속의 욕망은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슴의 체온이 식어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이미 늦다. 욕망이 없는 가슴. 그게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다. WIN CLASS

제주로 남해로 동해로, 문화 귀촌의 바람이 분다

“떠나요, 들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의 푸른 밤’의 가사처럼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휴가를 얻은 뒤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며칠 쉬다가 돌아오려 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마음이 바뀌었다. 아예 그곳에 눌러 살고 싶어진 거다. 갑자기 땅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사라도 지어보려는 걸까? 비슷하지만 다르다. 귀농이 아니라 ‘문화 귀촌’이다. 농사가 아니라 문화를 테마로 도시 바깥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

글. 이명석(대중문화비평가)



도시를 떠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50만 명에 육박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귀농이라고 하면, 노령층이 은퇴 시기를 맞아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30~40대의 젊은 귀농·귀촌 가구들이 급격히 늘어나며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들은 현대적인 농법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고 다양한 루트로 소비자들과 직거래한다. 또한 농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시골의 아담한 집을 개조해 색다른 감각의 카페, 베이커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또는 특색 있는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 풍경을 새롭게 만든다.

왜 이렇게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떠나려는 걸까? 무엇보다도 주거비, 교통비 등 도시 생활비로 가계가 휘청거리기 때문이다. 가족이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쓴 곳을 찾아 번두리나 교외로 나가다 보면 아예 훌쩍 멀리 떠나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된다. 또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치열한 교육열

과 경쟁, 놀이 공간도 없는 동네,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질환과 아토피... 이렇게 괴로워하니 부족하나마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이유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안을 찾아보게 된 것이다.

유명인과 연예인들이 제주도로 집을 옮기고, 자신의 여유로운 일상을 SNS나 블로그로 소개한 것도 큰 관심의 계기가 되었다. “해시계처럼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든다.” 제주도에 신혼살림을 차린 유명 가수가 인터뷰로 전한 말이다.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도시에서 살아갈 이유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 덕분에 회사에서 하던 일을 재택근무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가 항공이나 KTX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사정도 큰 도움이 되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제주도 등지로 사옥을 옮기고 있어 “어쨌든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는 통념도 변화하고 있다.

하나 ‘여기가 좋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답을 얻어야 한다. 모두가 유명 가수처럼 음원 수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올레길, 전주 한옥마을, 남해의 섬 등 국내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어떤 해답이 되었다. 사람들이 내려가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을 찾자. 우리 가족이 살 집도 짓고 여행객들을 맞이할 공간도 만들자. 천편일률의 관광지 같은 느낌은 완전히 지우자. 정말로 조용한 시골에 내려와 사는 것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짓자. 근처에는 그런 곳을 찾아올 이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빵집,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 외국의 여행지에서 비슷한 모델을 체험한 이들이 과감히 떠났다. 대도시에서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던 이들도 비싼 월세에 한계를 느끼며 함께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농담까지 들린다. “몇 년 전에 인사동에서 놀던 사람들이 지금은 지리산에 다 내려가 있고, 흥대 앞에서 놀던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 있다.”

낯선 지방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알게 모르게 텃세에 치이고, 대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생활 시설의 불편함도 있다. 귀촌으로 각광받는 지역에서는 다시 부동산 가격

이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화 귀촌의 바람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이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방 도시에서 역사적인 건물을 개조해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주변에 매력적인 상업 시설을 만드는 데도 귀촌인들의 감각이 도움이 되고 있다. 경남 통영에 자리 잡은 작은 출판사 ‘남해의 봄날’은 이런 이야기를 모아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을 펴내기도 했다.

물론 아무리 자연과 가까운 삶이 매력적이라 해도 모두가 도시를 떠날 수는 없다. 또한 떠나서도 곤란하다. 문화 귀촌의 성공 여부는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하면 도시와 더 긴밀히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귀촌인은 도시인의 방문 덕분에 자기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도시인은 귀촌인 덕분에 방방곡곡에 매력적인 쉼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발길과 마음이 오가다 보면 도시의 갑갑함도 시골의 불편함도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WIN CLASS

장내 미생물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

숨은 주인공, 장내 미생물

글. 윤승일(빙빙한의원 원장)



21세기는 뇌의 시대다. 뇌 안에 숨겨진 인간성과 창조성의 무한한 가치는 오늘날 과학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교육 전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의미에서도 현대 의학의 발달로 100세 수명을 누리게 된 지금 건강한 뇌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치매, 뇌졸중, 운동 장애, 우울증 같은 질환에 고통 받지 않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인간성을 누리며 천수를 다하고 싶은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일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한 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뇌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다. 뇌가 신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단독자가 아니며 뇌 역시 신체 내 다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기관이라는 것 특히, 장관 시스템과의 관계는 상호 작용 수준을 넘어 오히려 뇌가 장관계의 기능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데이비드 퍼머터는 그의 최근 저서 <장내 세균 혁명>에서 뇌 건강에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영향 관계를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언뜻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연구는 물론 임상 현장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뇌의 기능에 미치

는 영향은 누누히 확인되고 있다. 장이 뇌의 건강을 조율하는 기전을 이해하면 뇌의 질병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인 접근이 약물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과 사뭇 달라지게 된다.

장내 미생물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

인체의 장에는 인체 세포 보다 10배 이상 많은 미생물들이 서식한다. 약 100조에 달하는 이 생물군은 입, 귀, 코, 내장, 전신의 피부에 분포하여 몸의 안팎을 덮고 있다. 이 미생물들은 대부분 장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과 뇌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방출하며, 해독, 면역, 호르몬 계통에서 각종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인체와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 오늘날 의학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장 속에 있는 이들 미생물들이 우리의 뇌와,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주역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실제 장내 미생물은 행복감과 관련되어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세로토닌, 뇌 세포의 신경 발생 과정과 세포간 연결을 북돋아 치매, 간질, 강박장애, 우울증에 관여하는 BDNF(뇌

성장 단백질), 뇌파를 정상화시켜 불안증 치료에 사용되는 가바, 뇌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관여하여 인지, 기억, 학습에 관여하는 글루타민산염 같이 뇌에서 사용되는 각종 신경 전달 물질과 뇌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 또한, 장에서 음식의 열량을 추출하고 흡수를 주도하는 세균(후벽균)과, 분해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세균(의간균)의 분포 비율은 비만을 결정하는 숨은 결정 인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적절하고 그 종류가 다양하면 이들은 염증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줄여주고, 장벽을 튼실하게 하여 단백질이 장의 누수로 인하여 체내로 빠져 들어가 면역계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해준다.

이렇듯 장내 미생물이 신체 대사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뇌의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의 특성과 유전자 발현을 결정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개성을 결정하는 숨은 주역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장내 세균총을 위협하는 요인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의 현대인들이 그토록 취약한 장내 미생물을 소유하고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내 미생물의 상태는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식단의 변화를 통해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을 57%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사람의 뇌가 형성되어온 대부분의 시간(농경 사회 이전 구석기 시대) 동안 인류의 장 환경을 결정했던 음식들은 수렵과 채집을 통해 획득했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식이 섬유와 약간의 제철 과일을 통해 당분을 보충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사람의 장 환경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곡물과 과당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육류와 가공된 지방 위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

그 결과 장내 세균총이 변화되고 이는 뇌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장 일상적인 요인으로는 과당과 글루텐을 들 수 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주스, 탄산 음료 같은 제조된 제품을 통해 섭취하는 과당은 혈당의 증가시켜 포도당 내성을 유발하고, 각종 염증과 신경계의 퇴행을 유발하며, 비만을 유발하는 후벽균이나 신경 독소를 생성하는 클로스트리디아균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당이 많고 식이 섬유가 부족한 식단을 먹으면 원치 않는 세균이 자라 장 투과성, 미토콘

드리아 손상, 면역계 저하, 뇌에 까지 미치는 전신의 염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같은 곡물에 함유된 단백질로서 각종 가공식품은 물론 삼푸, 보습제, 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글루텐은 장 누수를 유발하고 혈뇌 장벽을 손상시키며,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방출을 유발하여 뇌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글루텐의 이 은밀하고도 가공할 공격은 오늘날 당뇨병, 운동 실조, 치매, 발작, 정신 행동 변화와 같은 제반 신경학적 합병증의 숨은 원인이 된다. WIN CLASS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법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한다

요구르트, 김치, 낫또, 청국장, 피클, 콤부차(홍차버섯) 티 같은 발효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지방을 먹는다

많은 류의 채소(2/3접시)와 약간의 단백질(85-110g),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에 함유된 지방을 비롯해 버터, 올리브유 등 요리에 사용되는 지방 그리고, 견과류를 통해 섭취하는 지방 식단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고 대사를 증진시키며 염증을 예방한다.



와인, 차, 커피, 초콜릿을 즐겨라

와인, 커피, 차, 카카오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은 산화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 투과성을 안정시키는 비피더스균을 증진시킨다. 와인은 하루 한잔, 커피는 하루 2잔 내에서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치커리, 돼지감자, 마늘, 양파, 대파, 참마,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 독소를 관리한다

염소 소독 된 수도물은 장내 미생물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수된 물을 섭취한다. 캔과 가공식품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전자 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철마다 단식한다

일정 기간동안의 단식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전신의 산화스트레스가 줄며,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 발현이 촉발된다. 또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뇌세포의 성장이 자극되고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증진된다. 1년에 2~3회, 24~72시간의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차르트와 클림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까지 유럽의 못 예술 천재들과 석학들이 머물렀던 도시 빈. 도시 곳곳에 자리한 이들의 흔적을 더듬고 미술관과 콘서트홀을 순례하다보면 어느새 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글 · 사진 최갑수(여행작가)



해마다 11월 중순이면 유럽 전역은 크리스마스 마켓의 개장과 함께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말그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시장이다. 대개 11월 말쯤 시작돼 12월 25일께 끝난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와 릴, 독일의 드레스덴, 아헨, 뉘른베르크, 영국의 맨체스터, 벨기에의 브뤼셀, 체코의 프라하 등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도시다. 오스트리아 빈도 마찬가지. 해마다 '크리스마스 마켓 베스트 10'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

저마다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마켓

빈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총 50개가 있다. 한 도시에 이처럼 많은 마켓이 열리는 곳은 전 세계에서 빈이 유일하다. 커다란 광장 앞에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부터 시 외곽의 작은 골목에 들어서는 소소하고 다정한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저마다 다양한 특색을 자랑하는 마켓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한다.

이 가운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곳은 시청 앞에 들어서는 마켓이다. 150여 개의 상점이 신고양 양식의 시청사 앞 광장을 가득 채우는데 빈 시민들과 전 유럽에서 모



여든 관광객이 뒤섞여 떠들썩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벗어난다. 단채관광을 온 중국인들도 보이고 다정한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는 한국인 부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상점마다 파는 물건들도 다양하다. 군밤이며 크리스마스 인형, 트리 장식을 위한 전구, 전통 공예품, 사탕과 젤리, 벌꿀 양초 등등 하나같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나 이 마켓에서 저 마켓으로 돌아다니다보면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빈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마다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마리아 테레지아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양 편에 자리한 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물 때문인지 중세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칼스플라츠 아트&크래프트 마켓은 아름다운 수공예품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스피텔베르크 마켓에는 빈의 예술가들이 만든 소품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유리 공예와 사진 작품 등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암호프 마켓도 즐겁다. 인근 헝가리와 체코, 이탈리아 등에서 건너온 상인들이 만든 독특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

이다.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다들 인심도 후해져서 시식용 음식을 끝도 없이 내준다. 이것들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 이들이 만든 케이크와 깐놀리 등 달콤한 디저트와 소시지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글뤼바인을 마시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와인에 계피 등을 넣고 데운 전통 음료인데, 훌쩍거리며 마시다보면 차가워진 몸이 스르르 녹아든다.

오스트리아의 상징성 슈테판 성당

글뤼바인 한 잔 마셨으면 빈의 술한 명소들을 둘러볼 차례다. 빈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시내 한가운데에 자리한 성 슈테판 성당이다. 이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빈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슈테판 대성당은 그 모습 자체로 장엄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137미터 높이의 첨탑을 바라보고 있자면 이곳을 왜 '빈의 혼' '빈의 심장'이라 부르는지 저절로 이해가 간다. 12세기에 지어진 성 슈테판 대성당은 23만 개의 벽돌로 쌓아올린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성당이다.





이곳에는 모차르트의 숨결도 묻어있다. 모차르트는 1782년 이곳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그의 장례식도 1791년 역시 이곳에서 치러졌다. 위대한 음악가의 새로운 시작과 경건한 끝을 함께한 곳이 바로 슈테판 대성당이다.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나왔지만, 장례식을 치른 후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바람에 그의 시신은 자루에 담겨 공동묘지의 구덩이에 내던져졌다. 훗날 인부들이 다시 매장하려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묘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슈테판 성당 앞에서 시작되는 게르트너 거리는 빈 최고의 변화가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이곳에는 고급선물용품점과 현대적인 액세서리점, 부티크 브랜드 샵, 카페, 레스토랑 등이 늘어서 있다. 전 세계의 오페라 하우스 등에 상들리에를 공급하는 룩마이어와 수 대재 장인이 만드는 모자를 만드는 상점 올 바우어, 스와로브스키 등의 전통있는 브랜드와 함께 SPA브랜드 등도 들어서 있어 빈을 찾은 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가슴 떨리는 명화와의 만남

빈이라는 도시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술 아날까. 합스부르크 왕조는 패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의 향기는 아직도 빈 시내 곳곳에 남아 이 고고한 도시의 우아함을 여전히 유지시켜주고 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며칠 동안 미술관 투어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빈인데, 미술사박물관, 레오폴트미술관, 알베르티나미술관, 쿤스트하우스 등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들이 어깨를 맞대고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대대로 모아온 중세·근대 미술품들을 보유한 미술사박물관은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을 자랑한다.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미술사를 아우르는 눈부신 회화 작품들과 고대 이집트 유물,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조각 및 공예품 등으로 가득한 미술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는 커녕 일주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 미술사박물관과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박물관 중 하나로 추천할 만하다.

벨베데레 궁전도 빼놓을 수 없다. 빈 남동쪽에 위치한 바로크양식의 궁전이다. 상궁과 하궁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궁은 19·20세기 회화관, 하궁은 오스트리아 미술관으로 사용한다. 이곳 벨베데레 궁전이 빈 여행의 필수코스인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원작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과 실제로 마주하는 감동은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림 앞에 서면 숨이 턱 하고 막힌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림 앞에 서지만, 온몸을 덮쳐오는 감동은 상상 이상이다. 눈물을 흘쩍이는 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박물관 안은 촬영금지인데, 굳이 촬영금지 표지를 붙여놓지 않아도 될 듯. 셔터를 누를 생각조차 들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알베르티나미술관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뭉크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진품들이, 그것도 각 년도별 에디션 별로 주르륵 걸려 있었다. 신디 셔먼, 모리야마 다이도 등 현대 사진의 거장들의 작품을 오리지널 프린트로 만나는 일도 진귀한 경험이다.

어깨 위를 흐르는 왈츠의 선율

빈에는 50개의 공연장, 4개의 오페라극장이 있다. 빈에서 한 해 동안 열리는 오페라 공연만 300개 가량이 될 정도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 쇤베르크가 태어난 곳이 빈이고,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브람스, 말러와 같은 유명 작곡가들도 빈과의 인연을 맺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정상급의 교향악단이며,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다. 이 밖에도 테아터 안 데어 빈, 무지크페라인, 챔버 오페라와 같은 많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스스로 ‘종교보다도 문화를 더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빈 사람들은 그 증거로 ‘오페라 하우스가 슈테판성당보다 먼저 지어졌다’는 사실을 들 정도다.

모차르트 추종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장소는 슈테판 대성당 뒷편에 자리한 휘가로 하우스(Higárohaus)다. 모차르트가 ‘휘가로로의 결혼’, ‘돈주앙’을 작곡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인데,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1784년부터 1787년까지 살았다고 한다. 시내 중심지에는 베토벤 하우스도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오르면 4층에 한때 베토벤이 머물렀던 방이 있다. 그 방에는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와 편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는 이곳에서 교향곡 4, 5, 7, 8번을 작곡했다.

링의 남동쪽에 자리한 시립공원(Stadtspark)은 링이 완성되던 1860년대에 조성된 곳이다. 면도칼로 자연을 베어 놓은 듯한 프랑스식의 정원도 아니고, 자연을 건축으로 보이게 하는 이탈리아식 정원도 아닌, 자연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수수한 영국식 정원이다. 이곳에는 슈베르트를 비롯해 요한



슈트라우스, 레하르, 브루크너 등 빈에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기념상을 볼 수 있다.

비엔나에서는 꼭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시길. 음악 감상은 빈에서는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기회다. 빈필이 들려주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듣다보면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빈의 오페라 극장은 좌석에 앉아 보려면 정장을 해야 하는데, 입석표를 사면 자유로운 복장으로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요금은 4유로 정도. 공연시간 약 2시간 전에 가면 입석표를 구할 수 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멜랑지 한 잔

빈의 음식은 대부분 독일과 헝가리, 오스만 튀르크의 영향을 받았지만 '비너 슈니첼'(Wiener Schnitzel)만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빈에서 시작해 전 유럽으로 대중화됐다. 슈니첼이란 계란옷을 입혀 굽거나 튀긴 고기 요리를 뜻하는 독일어로 우리나라 돈가스과 비슷하다. 비너 슈니첼은 송아지고기를 납작하고 얇게 다진 뒤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낸 것이다. 여기에 레몬즙을 뿌리고 라즈베리 소스

등에 찍어 먹으면 상큼함이 더해진다.

슈니첼 외에 유명한 고기요리이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를 비롯한 고기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는 타펠슈피츠(Tafelspitz)다. 부드러운 소영덩이 살과 다양한 야채, 소뼈를 넣어 삶은 뒤 국물에서 재료를 건져 소스와 함께 먹는 음식이다. 비엔나 시내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이 두 가지 전통요리를 쉽게 맛볼 수 있다.




빈의 커피는 201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고 명물이다. 특정 명소가 아니라 빈의 커피문화 전체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빈의 커피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카페 센트럴'(café Central)은 1876년 문을 연 뒤, 카페와 살롱 문화의 상징이 된 곳으로 빈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작가인 알텐부르크의 단골로 방문했던 유서 깊은 장소다. 카페 스페르(Sperl)은 1880년 문을 연 카페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두 주인공이 마음을 고백했던 바로 그곳. 바로크풍의 실내장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빈에는

프로이트가 빈에 살 때 애용했던 카페 란트만(Landtmann)을 비롯해 2000개가 넘는 카페가 있는데 지금도 이처럼 유서 깊은 카페가 15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빈에서 카페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다. 문화를 만나러 가는 길인 셈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비엔나엔 '비엔나 커피' 메뉴가 없다. 진한 에스프레소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 있는, 우리가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이 커피의 진짜 이름은 멜랑지(Melage)다. 멜랑지 커피 한 잔과 함께 초콜릿 케익인 자허토르테(Sachertorte)나 애플파이의 일종인 아펠슈트루델(Apfelstrudel)을 먹다보면 유럽에서 가장 아릅답고도 낭만적인 도시가 이곳 빈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아침, 나슈마르크트(Naschmarkt)도 빼놓지 마시길. 빈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120개의 마켓스탠드와 비엔나 음식부터 인도, 베트남, 이탈리아 음식까지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빈 시민들의 생생한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WIN CLASS

Travel Point

-  **항공** 대한항공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구간을 운항한다. 오스트리아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등을 이용해 뮌헨이나 프랑크푸르를 거쳐갈 수도 있다.
-  **음식** 비엔나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은 비너 슈니첼이다. 우리나라 돈가스와 비슷하데 송아지고기를 납작하고 얇게 다진 뒤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낸 것이다. 여기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커피도 유명하다. 빈의 커피 문화가 201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시청 앞에 자리한 '카페 란트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단골로 찾았던 곳. 커피와 거품 낸 우유를 반반 섞은 부드러운 맛의 멜랑지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  **정보** 빈은 3, 4일 만에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볼 게 많은 도시므로 하루 이틀 돌아다니면 볼 수 있겠지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링슈트라세(Ringstrasse)가 있기 때문이다. 구시가지 한가운데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난 도로다. 5km의 도로를 따라 90여 개의 거리와 광장, 50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원의 중심에 슈테판 대성당이 우뚝 솟아 있고 주변으로 주요건물인 호프부르크와 국회의사당, 오페라하우스, 수많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들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가 남긴 유산을 만나기 위해서는 링슈트라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겨울바람을 가르는 펀치샷 & 넥다운샷

월동을 준비하는 골퍼들은 겨울에 필요한 타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겨울에는 평소보다 핸디캡이 10개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우선 옷부터 두꺼워지는데다가 낮은 기온 때문에 근긴장은 높아지고, 잔디의 답압은 낮아져 볼을 깔끔히 치는 확률이 낮아진다. 일교차가 커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부담이다. 여러가지 타법을 고안해 적재적소에서 유용하게 써주는 방법을 알아본다.

도움말: 방다솔(프로골퍼) 사진: 조도현 장소협찬: 서산수 골프 앤 리조트



방다솔 프로골퍼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
전국체전 금메달
SBS골프 스타일앤팁
SBS골프 레슨테라피 시즌4
SBS골프 멘토링레이스
중앙대학교 체육대학 골프전공 4학년 재학 중



PUNCH SHOT

펀치샷이란?

펀치샷은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세우고 공을 눌러치는 샷이다. 때문에 백스핀과 탄도는 줄이고 오버스핀량은 증가되어 탄도가 낮고 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무에 가로막힌 곳이나 우드칩 등 주로 낮은 탄도로 리커버리를 해야 하는 곳에 유용한 대표적인 샷이다.



어드레스

공을 오른발에 많이 가까이 놓아주고 손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넘어오게 한다. 체중은 왼발에 두고, 그립은 평소보다 20%만 단단하게 잡는다.

TIP 이때 자연스럽게 클럽의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는게 핵심포인트!



백스윙

그립을 어드레스때 완성된 손목각을 백스윙 톱까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가파른 백스윙을 들어준다. 이 때 손목이 불편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백스윙을 끝낸다.

TIP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할 때 가파른 코킹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볼이 뜨기 때문에 꼭 가파른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 줘야한다.



PUNCH SHOT



다운스윙 & 임팩트

▶ 톱에서 만들어진 손목각 그대로 풀리지 않고 임팩트 까지 끌고 오는게 펀치샷의 핵심이다.

TIP 펀치샷은 일반 스윙과 달리 손목의 로테이션이 거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피니시

▶ 피니시는 로테이션이 없이 폴로스루를 하게 된다. 피니시까지도 오른손바닥이 최대한 타깃 방향으로 향해서 있으려고 신경을 써준다면, 로테이션이 되는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TIP 로테이션을 최대한 늦춰주면 탄도가 낮아진다.



KNOCK DOWN SHOT

넉다운샷이란?

넉다운샷은 평소보다 가파른 타격으로 백스핀을 증가시킨다. 평소보다 탄도도 살짝 낮고 거리가 반클러프 정도 짧아지지만, 그만큼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유용한 대표적인 샷이다.



어드레스

▶ 볼은 왼쪽발에 공 한 개 정도 옮겨놓고 공이 있는 지점으로 체중 중심을 맞춰준다.

TIP 펀치샷과는 달리 넉다운 샷은 로프트 각도가 정상적이다.



백스윙

▶ 백스윙을 할 때에도 가파른 하향타격을 위해 중심축을 볼위치에 두고 백스윙을 해준다.

TIP 백스윙톱에서 체중이 왼발과 오른발에 6:4정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



다운스윙 & 임팩트

▶ 왼발에 있는 중심축을 지켜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준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가 임팩트때 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평소에 상향타격 위주의 골퍼라면 조금더 상체를 일자로 세워서 볼을 맞춰주도록 노력한다.



피니시

▶ 피니시는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반듯하게 서준다. 피니시를 끝까지 하면 신체가 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체를 반듯하게 일자로 세우는데 집중한다.

TIP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건 볼을 건어올리게 하기 때문에 오버스핀량이 증가한다.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준 고양이와 함께한 마법 같은 시간

넬모레 마흔, 11년차 광고 디자이너, 잘생긴 스페인 남자와 10년째 동거 중. 그러저럭 잘살아왔다 싶었는데 사라에게 요즘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심한 긴장감과 피로로 비틀거리던 사라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똑똑! “나 좀 들어보내줄래?” 놀랍게도 말을 걸어온 건 고양이였다!

고양이의 말을 애써 무시해봤지만, 그 후로 사라에게 벌어진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다. 노트북은 만원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프레젠테이션 중에 기절을 한 데다, 우울증 진단. 수상한 김새를 보이는 남자 친구는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다짜고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을 걸어온 고양이는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너 정말 행복한 거야?” 그제야 돌아보니 사라의 삶은 조각조각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남자친구의 배신에 가족의 파산으로 비가 새는 허름한 아파트로 내몰리게 된 사라.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녀는 곁을 지켜주는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나간다.

누구나 한번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멀어지고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이곳에 없는 것만을 꿈꾸는 순간. 혹은 여기 있더라도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은 것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행복’이란 말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라의 하루하루가 그렇다. 마흔 살을 눈앞에 둘 때까지 바쁘게 달려왔지만, 몸도 마음도 다 소진해버린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이어 남자 친구의 배신과 우울증, 경제 위기까지 몰아치자 사라의 삶은 순식간에 바닥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된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블랙홀과 같은 절망의 순간, 구원처럼 자신을 꺼내줄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에서는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따뜻한 위안을 주는 존재인 고양이가 말을 걸어온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민들을 외면한 채 행복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예리한 관찰력과 유머 감각으로 세상을 즐기는 고양이의 지혜는 삶의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희망의 목소리다. 소설처럼 극적이고 에세이처럼 진솔하게 다가오는 이 책은 행복을 말하는 고양이, 시빌을 통해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WIN CLASS



에두아르도 하우레기 지음 | 심연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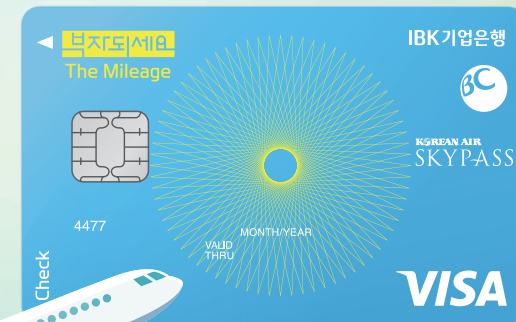
(2016. 5월 현재)

부지되세요 The Mileage

현명하게 선택하고, 담당하게 사용하는 당신
BC카드와 함께라면 당신은 이미 부지됩니다.
*BC 부지되세요, 카드

부지되세요 더 마일리지

연회비 없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5개 온라인몰 할인까지 되는 체크카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 5개 온라인몰 : 1,000원 당 1마일
- 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 건당 3만원 이상 이용건 월 할산 100만원까지 적립
- 5개 온라인몰 제외 국내 가맹점 : 3,000원 당 1마일
- ※ 건당 3만원 이상 이용건 월 할산 100만원까지 적립

온라인몰 할인 서비스 🛍️

- 5개 온라인몰 5% 할인
- 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 온라인몰별 월1회
- SSG.COM LOTTE.COM elLOTTE AK MALL gallery

생활 할인 서비스 🎡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2천원 할인
- ※ 통합 월1회
- 놀이공원 무료입장 또는 입장권 50% 할인
- ※ 통합 월1회, 연2회

발급안내

-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발급구분 : 체크 · 발급브랜드 : VISA(국내외겸용) · 연회비 : 면제 · 교통 : 비교통, 후불교통
- ※ 이 안내장은 요약된 것으로 서비스 제공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IBK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504호(2016.05.20) CP078 게시기한 : 2017.05.19

이 안내문은 2016.05.20일 현재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팀 또는 IBK고객센터(☎ 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6.05.24)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내용 등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하나, 2개 이상 복수 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정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관: 국번없이 ☎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금융감독관: 국번없이 ☎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한 사심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저 연 16.5%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